

산수동 광주죽폴리서 ‘미래의 식탁’ 전시·강연

산수동 도시재생 연계 프로그램 전통주·와인 등 시음·시식 병행 16일까지 강연·실험의 장 선배

광주 동구는 16일까지 산수동 광주죽폴리(공집·정미장)에서 ‘미래의 식탁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죽폴리 ‘정미장’과 ‘공집’은 산수동 공·폐기를 리모델링한 광주죽폴리 중 하나다. 식당과 카페로 운영됐던 이곳은 최

근 음식을 주제로 한 인문학적 담론과 강연, 실험과 공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수동 도시재생 연계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식문화에 대한 전시·강연(미식탐험)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는 담론의 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식물도감(食物圖鑑):미래의 식문화를 읽고 디자인하고 감상하다’를 주제로 한 전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와 사라져갈 먹거리의 풍경을 이야

기한다. 강연은 ‘식탁의 미래_지속가능한 미식의 탐험’을 주제로 4개의 강의와 간단한 시음·시식을 병행한다.

세부적으로 △기후위기 시대 위협받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전통주에 지속가능한 미래와 로컬을 담다 △지속가능한 식탁을 위한 미식 탐험과 광주의 미식 풍경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와인의 미래와 소비 등 4가지 주제로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동구청 누리

집 또는 동구 모바일 앱 ‘두드림’에 게시된 포스터의 QR 코드로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현대사회에서 음식이 중요한 만큼 지속 가능한 식문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행사가 미래 식탁을 위해 우리의 밥상에서부터 음식을 매개로 공생공락(共生共樂)을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bo.com

‘통합방위 경계협약’ 체결 남부경찰, 일반테러 대비



광주남부경찰이 국내일반테러 상황을 대비해 경·군 경계협약을 체결했다.(사진)

광주남부경찰은 지난 8일 안보위협과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통합방위작전시 상호 지원 및 협력을 위해 제6753부대 1대대와 경·군 경계협약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문병조 남부경찰서장은 “경찰 주관인 국내일반테러 상황에 있어 6753부대와 협업을 통해 통합방위 체계를 강화해 골든타임 내 작전을 종결하고 남구민의 안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인턴기자

지역사회통합돌봄 장관상 북구, 복지부 평가

광주 북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자 올해부터 시작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모범사례를 발굴, 전국에 확산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공모에 참여한 40개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해 주요 성과 정량평가, 추진체계 구축 노력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8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북구는 ‘더 다양한, 더 두터운, 더 촘촘한 통합돌봄 더:봄’ 사례를 공모,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북구의 통합돌봄 공모 사례는 주민 직접접 기관인 동에서부터 정책을 총괄하는 본청까지 돌봄 전담 인력을 두루 배치, 돌봄 대상자를 동·권역·지역 별로 관리하는 등 통합돌봄 체계를 상향식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현 기자

남구 ‘새해 안전달력’ 배부 재난유형·대처요령 등 담겨

광주 남구는 연중 시기별로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 안전 수칙 등을 담은 2024년도 새해 안전달력을 제작, 배부한다.

10일 남구는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요령을 담은 벽걸이용 안전달력 1500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새해 안전달력은 가로 42cm, 세로 61.5cm 크기로 상세 이미지를 활용한 12가지 재난 유형 및 안전사고 예방법이 담겨 있다.

안전달력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재난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 계층 주민들과 경로당 및 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시설에 배부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연중 시기별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안전 수칙, 주의 사항이 담겨 있어 일상생활에서 달력을 보면서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이 인턴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8일 첨단1동 31호 교통광장, 첨단아미둘레길 일원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 지역주민, 맨발걷기시민운동본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집앞 맨발길 주민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광산구 ‘맨발길 지킴이’ 활동·참여 기반 구축

32곳 목표... 올해 16곳 완료

광주 광산구는 시민의 참여와 활동을 통한 맨발 걷기 활성화에 나섰다 10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8일 첨단1동 31호 교통광장, 첨단아미둘레길 일원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 지역주민, 맨발걷기시민운동본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집앞 맨발길 주민 소통마당’을 개최했다.

광산구는 시민이 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내집앞 맨발길’을 조성하고 있다. 각 동을 통

한 수요조사,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발굴, 광주에서 가장 많은 32개소(16km)의 맨발길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지난 1일 기준 11개소(5245m)에 세족장, 노선 안내판, 휴게 의자 등을 갖춘 맨발길이 만들어졌다. 현재 5곳에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까지 총 16개 맨발길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맨발길 활성화를 위해 청소하고 관리하는 ‘맨발길 지킴이’, 맨발 걷기 모임 등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광산구는 맨발길을 중심으로 시민 일상에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 활동이 생겨나고 지역만의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미 맨발걷기시민운동본부 광산구 지회장은 “광산구가 발 빠르게 주민이 일상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나서준 덕분에 곳곳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시민이 집 주변, 공원이나 등산로 맨발로 걸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행로와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서구-중국 광둥성 황푸구, 상생발전 협약

광주 서구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은 지난 8일 중국 광저우시 황푸구를 방문해 시엔인송 황푸구장과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

양 도시는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교육·문화·예술·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양측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황푸구는 인구 120만명의 신흥경제지구로 전국 최초 혁신시범구로 지정됐다. 국가급 기업 인큐베이터를 갖춘 광둥과



학기술혁신, 하이테크산업, 사업과 도시의 융합 발전 등이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공지능 산업에 주력하고 있다. 화난지방 수운의 중심지로 화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수운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다.

김정장은 “광주시와 광저우시가 오랜

형제도시로 국제대회나 코로나19 때 서로 힘이 됐던 것처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엔인송 황푸구장은 “경제무역, 문화, 체육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돈독한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협약을 기념해 황푸구에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 휘호를 선물했다. 황푸구는 서구에 중국의 첫 군관학교가 그려진 액자를 선물했다.

한편 김 청장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지난 6-9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광주시는 서구가 추진해 온 통합돌봄 사업을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으로 확대 시행해 혁신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광저우 혁신상’을 수상했다.

강주비 기자

‘구청, 불공정 감사 결과 유출’ 강한솔 광산구의원



광주 광산구 산하 비영리복지법인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대한 광산구의 감사가 공정하지 못했고 미공개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기까지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강한솔(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은 전남 본회의 구정 질의에서 “감사가 총 1회 3시간에 불과해 피감기관인 재단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재단 측 동의 확인이 없었는데도 광산구가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결재했다”고 했다.

광산구는 최근 재단 복지관장 채용 과정에서 서류 미비 등 절차 문제를 감사에서 적발, 채용 취소와 사무처장 중징계 처분을 재단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올해 7월 광산문화원 감사에서도 직원 채용 중 일부 서류를 건지 않은 비슷한 문제가 적발됐으나 그때는 경징계인 주의 처분만 내려졌다”며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관장 응모자 면접일 당일 구청의 담당 과장이 민원을 이유로 ‘적격자 없음’ 결정과 채용 재검토를 요구한 의혹도 있다. 사실이려면 재단 업무에 대한 중대한 권리 침해”라며 “문화재단이 현재 광산구가 설립을 추진 중인 광산복지재단과 업무 영역이 겹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지닌 감사였다는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재단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서를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 감사 결과는 공정했다”고 반박했다. 김상철 기자